

광주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전 막 올랐다

동구 박종균·김현숙·문선화
서구 김수영·전승일·오광록
남구 남호현·박용화·김광수
북구 최무송·고영임·최기영
광산구 김명수·국강현 물망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마무리되면서 광주시 기초의회의 의장단 선거전이 본격 시작됐다.

15일 광주시 5개 구 기초의회에 따르면 제9대 전반기 광주 동·서·남·북·광산구의 회 각 의장은 6월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기초의회는 오는 6월 말부터 7월 초 본회의 등을 열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의장단은 의회를 이끌 의장을 필두로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을 뜻한다.

의장은 공식적으로 지방의회를 이끌어 가는 대표다. 자치단체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위상과 지위가 높다. 의장을 거치고 나면 향후 정치적으로 다른 자리에 올라서기 쉬워진다. 지방의회 의장을 역임하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한다. 집무실, 직인, 수행비서, 전용 차량, 업무추진비, 의전 등을 제공받는다.

이 같은 혜택과 향후 정치적 위상 제고를 노리는 의원들이 많은 만큼 후반기 의

장단 구성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동구의회

제9대 광주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은 김재식(민주) 의원이 맡았다. 후반기 의장은 4선 의원을 지낸 박종균(무소속) 의원과 재선 김현숙(민주) 의원, 초선 문선화(민주) 의원 등이 거론된다. 9대 동구의회는 민주당 5명에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하반기도 민주당에서 의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종균 의원은 8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만큼 경험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자신이 지지하던 안도걸(광주 동남을)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만큼 민주당 복당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숙 의원도 재선으로 8대 의회 때 부의장을 지냈다. 전반기 의장직을 노렸던 만큼 하반기에도 도전한다는 각오다.

문선화 의원은 초선으로 9대 의회 기획총무위원장을 맡고 있다. 문 의원은 의장직 첫 도전으로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져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서구의회

제9대 광주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은 고경애(민주) 의원이다. 서구의회 역시 의원 13명 가운데 11명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차기 의장도 민주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경애 의장의 지역구가 '서구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의장은 '서구갑' 지역구 의원이 선출될 것이라는 관

측이다. 관례에 따라 '갑'과 '을' 지역이 번갈아 가며 의장직을 맡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반기 의장 후보로는 김수영·전승일·오광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3선'인 김수영 의원은 9대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8대 사회도시위원장, 6대 운영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전승일 의원은 재선으로 8·9대 사회도시위원장을 역임해 경험적인 면에서 밀리지 않는다.

같은 재선 의원인 오광록 의원도 7대 부의장, 9대 기획총무위원장을 지낸 바 있어 역량을 갖췄다는 평이다.

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의장직에 도전 의사를 내민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6월께 각자 입장 정리를 할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남구의회

제9대 광주 남구의회 의장은 황경아(민주) 의원이 맡았다. 남구의회는 민주당 10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출신 의장이 이어질 분위기다. 후반기 의장 후보로는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남호현 의원과 4선 박용화(무소속)·재선 김광수(민주)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재선인 남호현 의원은 9대 전반기 부의장을 지내고 8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박용화 의원은 유일한 4선 의원이지만

무소속인 탓에 전망은 밝지 않다. 박 의원은 7대 의회운영위원장과 8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경륜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이다.

김광수 의원은 재선으로 8대 기획총무위원장과 사회건설위원장을 맡으며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출마 의사를 내비친 의원은 아직 없다"며 "초선인 의원들도 의장직에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구의회

제9대 광주 북구의회 전반기 의장은 김형수(민주) 의원이 맡았다. 부의장은 최무송(민주) 의원이다. 후반기 의장은 최무송 부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고영임(민주), 4선 최기영(민주) 의원이 점쳐진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 의원이 의장 선출 1순위로 꼽힌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정준호 국회의원을 지지, 당선까지 물심양면 도왔다.

다만 과거 시의원 경선 과정에서 당의 결정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복당한 전례가 있어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외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의원들도 있으나 대부분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지역구 국회의원이 물갈이돼 소극적인 자세를 취

하고 있다.

●광산구의회

제9대 광주 광산구의회 전반기 의장은 김태완(민주) 의원이 맡았다. 부의장은 윤혜영(민주) 의원이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후반기 의장은 3선 김명수(민주) 의원과 4선 국강현(진보당)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 우산동 토박이인 김 의원은 광산갑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 광주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제22대 광산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균택 후보를 최일선에서 도와 당선에 일조했다. 대부분 의원이 이용빈 현역 의원을 지지했던 것과 달리 처음부터 박 후보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군공항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국 의원은 지난 2022년 한 차례 광산구의원 출마를 선언한 적 있다.

지역의회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 구체적인 출마 윤곽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지역 국회의원 다수가 바뀐 데다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 기조가 강했던 만큼 물밑에서 여러 공약 등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만큼 돌아갔던 지금까지의 전례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송민섭·정성현·강주비·정상이 기자

광주경찰 잇단 '음주비위' 문책인사 단행

서부경찰서장·형사과장 대기발령

광주 지역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잇따르면서 경찰서장 등 관리자들의 문책성 인사가 단행됐다.

15일 광주경찰은 광주 서부경찰서장을 광주경찰 경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부경찰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 지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서부경찰 형사과장도 서부경찰 경무과로 대기발령됐다. 음주운전 적발된 직원이 형사과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이다. 형사과장은 퇴임을 불과 2개월 앞둔 상태였다.

올해 발생한 광주경찰의 음주운전 비위 총 5건 가운데 3건이 서부경찰 소속 경찰

관들의 사례다.

지난 3일 서부경찰 형사과 소속 A경감은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됐다.

지난달 1일에는 금호지구대 소속 B경위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 2월2일에도 서부경찰 소속 C경위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서부경찰에 두 차례 북무실태 감찰을 벌였으며, 광주경찰도 별도로 감찰과 '특별경보'를 내렸다.

한편, 후임 서부경찰서장으로 장명본 광주경찰 치안정보과장이 부임해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강주비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광주 북구청 인권교육과 직원들이 15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북구청 광장에서 노란 바람개비와 리본을 설치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전남 비온 뒤 황사 온다

광주·전남은 비가 내린 뒤 황사가 찾아 오겠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에 16일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 한때 비가 온 뒤 차차 그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mm 미만이다.

비가 그친 후 평년기온을 회복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17일은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져 환절기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16일 아침최저기온은 10~14도, 낮최고기온은 18~24도가 되겠다.

17일 아침최저기온은 6~11도, 낮최고기온은 18~25도로 예측됐다.

강풍특보가 발표된 전남 남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

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풍랑특보가 발표된 전남동부남해안바다, 남해서부동쪽면바다에는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 전망이다.

파도는 2~4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17일까지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 권역이 '나쁨' 수준을 보여겠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다"며 "황사 발원지의 추가 발원량과 기류의 흐름에 따라 황사 지속기간과 지역, 농도가 매우 유동적이나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상이 기자

전남대·조선대 의대 학사 일정 29일까지 또 연기

더 늦추면 국가고시 응시 결격

학생들의 집단휴학으로 광주지역 의과대학 학사 일정이 또 연기됐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수차례 미뤄왔지만 이달 안으로 학사 일정을 개시해야 하는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선대 의과대학은 15일 학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학사 일정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다만 학생들의 휴학 신청 절하나 의정갈등 추이 등을 차분히 지켜보며 상황에 따라선 조기 개강도 모색키로 했다.

조선대는 당초 의대 개강을 이날부터 강의·실습을 재개하고자 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대거 결석이 예상되는 데다가 의

대 증원 관련 의정갈등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조선대 의대생 725명 중 80%가량인 593명이 휴학계를 내면서 한 달 넘게 개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전남대 의대 역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이렇다 할 상황 변화가 없다고 판단, 개강일을 오는 29일로 늦췄다. 전남대 의대는 현 재학생 732명 중 78.5%에 해당하는 575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무더기 휴학 신청으로 인한 재학생 불이익을 감안, 당초 개강일인 지난 2월19일에서 수차례 학사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의 수업 일수가 연간 최소 30주 이상인데 의대는

임상 실습 등을 포함해 더 길다는 점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이달 29일 이후로 개강을 더 미루기는 어렵다. 이달 이후에도 계획된 학사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면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도 결격이 발생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얻지 못한 의대를 졸업한 학생은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다.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임상실습 기간은 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29일은 재학생의 무더기 유급과 학사일정 파행을 막을 '마지노선'에 해당한다. 앞으로 부족한 수업 일수는 방학과 주말을 이용해 채우고, 온라인 강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해인 기자